

李, 4번 자존심 지켰다



올시즌 부상에 고전하다 막판 맹타... 팀 우승 기여 포스트시즌 맹활약 기대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주포 이승엽(31·사진)이 정규 시즌을 마치고 18일부터 시작되는 리그 챔피언십전 준비 체제에 들어갔다. ▲왼손 엄지 관절염으로 내내 고전 이승엽은 3월30일 요코하마와 개막전에서 2년 연속 개막 축포를 터뜨리며 화려하게 출발했으나 왼쪽 어깨-왼쪽 손바닥 떨림 현상 등을 연이어 호소하며 뼈걱거렸다. 결국 통증 원인은 왼손 엄지 관절염으로 규명됐고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 그는 시즌 중 수술을 원했으나 요미우리는 난색을 표명했고 이승엽은 참고 시즌을 완주할 수밖에 없었다. 초반부터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한 이승엽은 2년간 홈런왕을 차지했던 인터리그에서 타율 0.223(94타수21안타), 3홈런 7타점이라는 최악

의 성적에 남겼다. 이승엽은 부진이 지속하자 4번을 아베 신노스케에게 내주고 6번으로 밀렸고 급기야 7월12일에는 2군행을 자청, 재충전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1군에 복귀했지만 5, 6번을 뺏겼다 7번까지 강등되는 등 굴욕은 계속됐다. ▲막판 대반격-PS 맹활약 기대 8월 말 고무림을 벗어난지면서 투혼을 불사른 이승엽은 직선타성 타구를 양산하며 타율을 2할7푼대까지 올렸다. 두 차례나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이며 타격감을 되찾았고 9월9일 한신전부터 4번 타자에 복귀했다. 주니치와 사실상 순위 결정전에서도 홈런 2방 등을 쏘아 올리며 주포 위상을 되찾았다. 정규 시즌 1위를 확정 지은 2일 야쿠르트전에서도 동점 투런 아치로 3년 연속 30홈런을 달성하며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이제 남은 건 일본시리즈에서 개인 세 번째 우승 반지를 걸 수 있느냐 여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찬호 귀국... 올림픽 지역예선 대비 몸 만들기

올해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마쳤던 박찬호(34·휴스턴 에스트로스)가 4일 가족과 함께 귀국했다. 박찬호는 이날 오전 5시20분 아시아나항공 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아내 박리혜씨와 딸 예린양이 동행했으나 언론이

알지 못하는 채 조용하게 들어왔다. 메이저리그 통산 113승의 금자탑을 쌓은 박찬호는 올해 메이저리그에 단 한 차례만 등판했고 마이너리그 트리플A 라운드록 익스프레스에서 6승14패, 평균자책점 5.97을 기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찬호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오는 12월 예정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출전에 대비해 몸 만들기에 들어간다. 야구 대표팀 4차 예비 엔트리에 포함돼 최종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박찬호는 앞서 "일단 뽀하면 언제든 함께 할 의사가 있다"며 태극마크를 달고 뛰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김경문 두산 감독도 박찬호와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벤키 완봉 역투... 보스턴 레드삭스 첫승



美 프로야구 AL 디비전시리즈

20승 투수 조시 벤키의 완봉 역투를 앞세운 보스턴 레드삭스가 로스앤젤레스(LA)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을 누르고 미국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첫 승을 신고했다. 2년 만에 메이저리그 20승 투수 계보에 이은 벤키는 4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 파크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와 디비전시리즈 1차전에 선발 등판, 9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슈어내며 불넷 없이 산발 4안타 완봉 역투로 4-0 승리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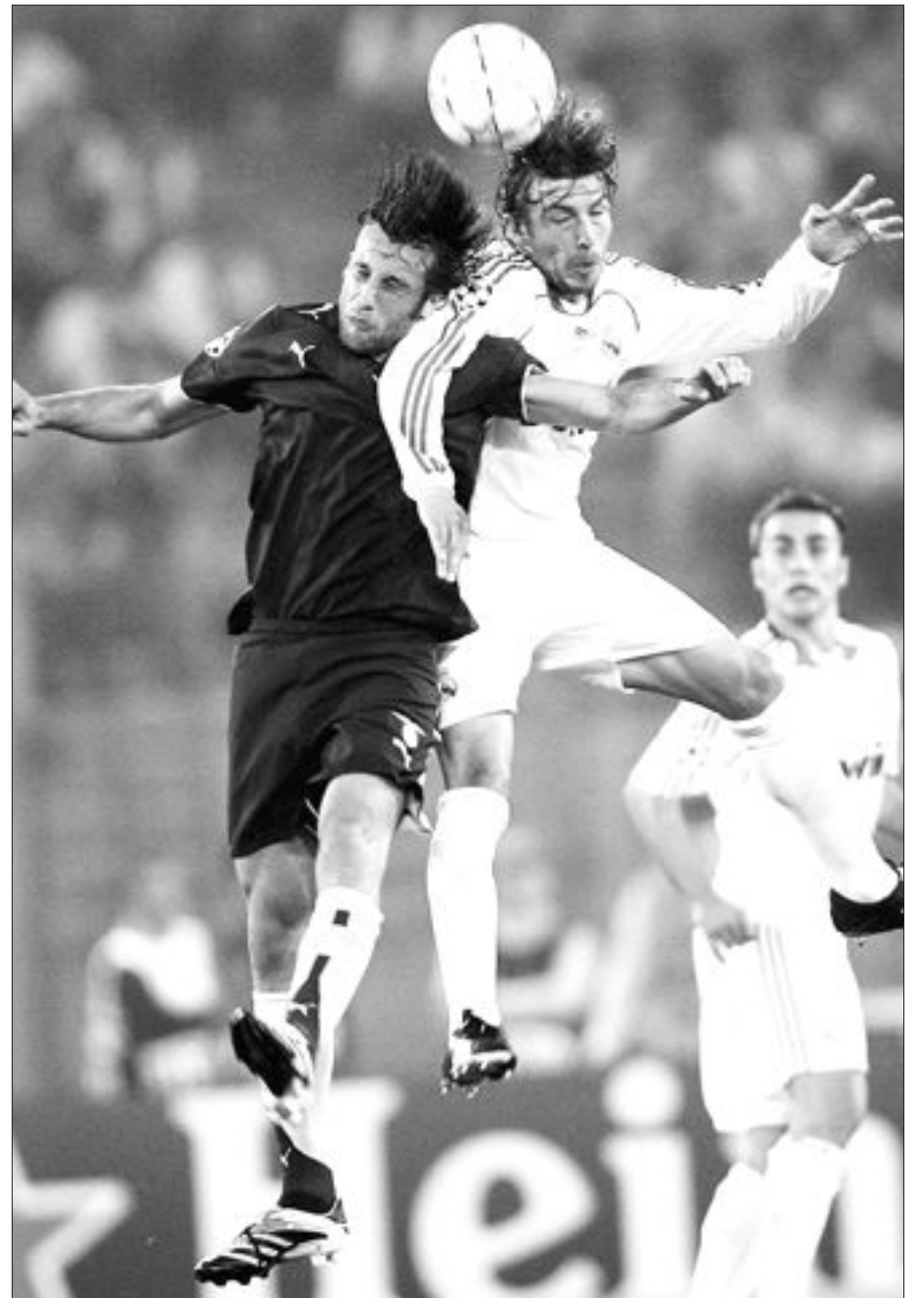
벤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156km 강속구를 뽐내며 괴력쇼를 벌였다. 2003년 플로리다 말린스 시절 월드시리즈 우승을 견인했던 그는 포스트시즌 통산 세번째 완봉승으로 이날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보스턴은 1986년 리그 챔피언십시리즈부터 포스트시즌 에인절스전 7연승을 내달렸고 벤키도 2003년 월드시리즈 6차전 이후 18이닝 연속 무실점 기록을 이어갔다. 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차전은 마쓰자카 다이스케(보스턴)-켄빌 에스코바르(에인절스) 선발 대결로 펼쳐진다.

5일(금) ▲메이저리그 AL 디비전 시리즈 1차전 <뉴욕 Y : 클리블랜드>(07 : 20·Xports) ▲LPGA 통산디럭스 챔피언십 1R(08 : 00·SBS골프) ▲한국여자 프로골프대회 삼성금융 레이디스 챔피언십 1R(13 : 00·Xports) ▲KPGA 코오롱 하나은행 한국오픈 2R(14 : 10·SBS골프) ▲KOVO컵 프로배구 <현대건설 : GS칼텍스>(16 : 00·KBSN SPORTS) ▲프로야구 <롯데 : 삼성>(18 : 30·MBC ESPN, 18 : 00·KBSN SPORTS)

'제철가' 포항·전남 FA컵 정상 다룬다

인천·제주 꺾고 결승 진출

'제철가 형제' 포항 스틸러스와 전남 드래곤즈가 2007 하나은행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우승컵을 다투게 됐다. 지난 대회 우승팀 전남은 대회 첫 2회 연속 및 통산 세 번째 정상 도전의 마지막 관문을 남겨 놓았고, 1996년 원년 대회 우승팀 포항은 2002년 대회 결승에서 수원 삼성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친 이후 5년 만에 F정상을 노크하게 됐다. 결승전은 11월 초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은 지난 3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 준결승에서 산드로, 김치우의 연속골로 2-0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올랐다. 포항도 이날 포항전용구장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브라질 용병 듀오 파바레스와 조네스가 한 골씩을 넣어 경기 막판 조진수가 한 골을 따라간 제주 유나이티드에 2-1 승리를 거뒀다.



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라치오(이탈리아)의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구티(오른쪽)와 라치오의 스테파노 마우리아가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돌아온 박주영 올림픽호 승선

발등 부상에서 회복해 K-리그에서 부활 득점포를 터트린 박주영(22·서울)이 4개월 만에 올림픽 대표팀에 승선, 6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공적 선봉 역할을 맡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오후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4차전 시리아 원정(한국시간 17일 오후 10시)에 나설 23명의 올림픽대표팀 최종 엔트리를 발표했다. 대표팀은 9일 정오 파주 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모여 한 차례 훈련하고 오후 11시55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출국, 전지훈련을 한 다음 15일 시리아로 이동한다. 명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천재 골잡이' 박주영의 올림픽호 재승선이다. 박주영은 지난 2월 예멘과 처먼 2차 예선 1차전에서 '배치기 퇴장'으로 세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데 이어 부상으로 예선 4경기에 출전 못했다가 6월 UAE전을 앞두고 3개월여 만에 올림픽호에 승선했다. 하지만 박주영은 다시 발등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그 이후 기나긴 재활훈련을 거쳐 지난 주말 K-리그에서 화려한 골로 부활을 알렸다. 이어 4개월여 공백을 깨고 박성화호에 합류하게 됐다. 박 감독은 공격직에 박주영과 더불어 신영록과 서동현(이상 수원)을 불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드로그바 결승골...첼시 역전승

리버풀, 마르세유에 0-1 패



C조에서는 '지구방위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라치오(이탈리아)와 원정경기에서 두 골씩 주고 받는 난타전 끝에 2-2로 비기면서 2연승 사냥에 실패했다. 이밖에 마르세유(프랑스)는 지난해 준우승팀 리버풀을 상대로 펼친 A조 2차전 원정 경기에서 1-0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으로 조 1위를 잡았다. 또 B조의 샬케04(독일)는 로젠보리를 2-0으로 물리치고 첫 승을 기록했고, C조의 올림피아코스(그리스)는 브레멘(독일) 원정경기에서 3-0 대승을 거두는 파란을 앞세워 무패행진(1승1무)으로 조 1위로 뛰어 올랐다. D조의 샤크타르(우크라이나)는 '강호' 벤피카(포르투갈)를 1-0으로 꺾고 2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두면서 선두를 지켰다. 하지만 지난 대회 우승팀 AC밀란(이탈리아)은 셀틱(스코틀랜드)과 D조 2차전 원정에서 후반 45분 통탄의 결승골을 내주며 1-2로 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장수촌 쌍탈

자연 그대로... 우리물에 좋은 유기농산물입니다

2007년 10월 5일 금요일

장수촌 쌍탈

02-522-5933

다들 뭐 카페 검색 하시 마늘주사 후루민 을 쳐보세요

http://cafe.daum.net/furumin

062-383-6883